

【논문】

다산의 주자 역학에 대한 비판적 계승

金永友*

【주제분류】 동양철학, 한국철학

【주요어】 정약용, 주희, 모기령, 역학, 실학

【요약문】 본고는 주자 역학에 대한 다산의 평가와, 다산보다 앞서 주자 역학을 비판했던 청대의 모기령에 대한 다산의 비판을 통해 주자에 대한 다산의 입장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힌 글이다. 다산은 선천역설과 하도낙서가 주자가 자신의 역학이론으로 체계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자의 정론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즉 다산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비판하는 주자의 역학이론과 주자를 분리한다. 대신 그는 주자 역학의 의의를 자신이 역학의 핵심이론이라고 주장하는 역리사법의 이론에 의거하여 역경을 해석하였다는 점에 두고자 한다. 이와는 반대로 모기령의 역학에 대해서는 모기령이 주자의 선천역설을 비판하는 논지가 자신과 비슷하다는 점, 역학의 핵심이론이 주자에 있다는 것을 천명한 점, 64괘를 백괘와 연괘로 구분하는 근거 등등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비판적 평가로 일관한다. 다산은 모기령이 주자의 역학사에 끼친 업적을 훼손하고 주자를 깎아 내렸다고 비판할 뿐이다.

다산의 주자학 비판은 그래서 중층적이다. 즉 다산은 주자학이 갖는 이론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주자학이 갖는 의의마저 버리고자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주자학에 대한 비판만을 목적으로 한 모기령에 대해 다산은 보다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즉 주자학은 단지 학문 이론이 문제였지 그들의 학문적 지향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청대 고증학은 그 학문적 지향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점에서 다산은 청대 학자들에게 보다 비판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산의 주자학 비판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산에 앞서 주자학을 비판했던 청대 학문에 대한 다산의 비판의식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세종대 초빙 교수

I. 문제 제기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철학과 사상이 주자학에 대한 비판에서 성립된 것이라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산의 사상을 주자학의 단절과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여기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다산의 저작 속에 보이는 주자학에 대한 다산의 평가는 주자에 대한 적극적 비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자에 대한 존승과 그 학문에 대한 계승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다. 심지어 다산은 자신의 학문 연구의 목적이 주자와 주자학에 대해 잘못된 비판을 가하는 청의 고증학자 모기령(毛奇齡, 1623-1713)에 대한 비판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청대의 대표적인 실학자라 할 수 있는 고염무(顧炎武, 1613~1682)나 황종희(黃宗羲, 1610-1695)의 경학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산의 주자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단지 유배된 처지의 학자가 취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다산의 학문에는 주자학에 대한 비판 못지 않게 계승과 발전의 성격이 있음을 뜻한다.

본고는 주자 역학에 대한 다산의 평가와, 다산보다 100여 년 앞서 주자 역학을 철저히 비판하고자 했던 모기령의 역학에 대한 다산의 비판을 비교하여 다산의 학문에서 주자학이 갖는 의의와 위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다산이 필생의 역작이라고 자부했던 『주역사전』(周易四箋)의 첫 장에서부터 다산은 자신이 역학의 핵심 원리라고 주장한 역리사법(易理四法)을 이미 주자가 밝혀 놓았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청대의 주자 역학 비판론자들이 문제삼았던 주자 『역학계몽』의 상수역(象數易)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자의 정론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자를 옹호한다. 그러나 주자 역학에 대한 이와 같은 표면적인 긍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산의 역학 이론안에서 주자 역학의 영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산의 역학이론은 모기령

역학과의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다산은 모기령 역학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모기령의 역학을 비판하지만 그 영향 혹은 유사성은 상당하고, 주자의 역학을 옹호하지만 주자 역학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다산은 왜 모기령의 역학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역학을 비판하고, 또 주자 역학에 대해서는 옹호하면서도 오히려 주자 역학과는 다른 역학 이론과 역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

II. 주자 역학에 대한 평가 1

다산이 주자의 역학에 대해 언급한 글들은 여러 곳에서 산견되지만, 하나의 논문 형식으로 논의를 전개한 저술로는 『역학서언(易學緒言)』의 「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微)」가 유일하다.¹⁾ 이 글에서 다산은 한대(漢代) 이래 역학(易學)의 대부분 이론이 주자에게 모두 완비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점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 속류 학자들에 대해 비판한다.²⁾ 여기서 다산의 평가 기준은 자신이 역학의 핵심 원리라고 주장한 역리사범이다. 나아가 다산은 정이천과 왕필의 역 해석도 역리사범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 글에서 지적한다. 즉 이 글은 주자의 『주역』 해석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것이 아니라 주자가 다산이 역학의 핵심 원리라고 파악한 역리사범을 역 해석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예는 다산이 자신의 주역 해석서인 『주역사전』에서 우선 주자가 이미 역리사범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 즉 다산은 주자의 역학에 대해 직접적인

1) 『與猶堂全書』 II-46-147 ~272의 「易學緒言·朱子本義發微」와 「朱子本義發微」는 『與猶堂全書補遺』편에는 “周易贖言”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2) 『與猶堂全書』 II-46-147, 「易學緒言」: “自漢而降, 易學大備於朱子, 名言至理, 多在本義, 俗儒不察.”

평가를 하기보다는 역지사변이 역학의 참된 해석 원리라는 것을 진제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사례로서 주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산의 지적처럼 주자가 『주역』을 해석하면서 동시대의 학자들과는 달리 物象·卦變·互體 등의 역학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자가 이들 역학 이론을 주역 해석에 수용한 내용과 배경에는 다산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송대 역학에서 주자 역학이 갖는 두드러진 특징은 주자가 『주역』을 복서[占筮書]라고 주장한 점이다. 『주역』을 점서로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의리서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화된 송대의 학문 상황을 고려한다면 주자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주자는 당시의 경학 연구의 풍조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경전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주관적 의진을 앞세우는 경향에 대해 깊이 경계하였다. 특히 『주역』의 경우 난해하고 애매한 기호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전 자체의 문법에 충실한 엄밀한 해석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자는 주역을 의리적으로 해석한 정 이천의 『역전(易傳)』을 비판하였다.³⁾ 정 이천의 『역전』이 성리학의 의리(義理)를 진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주자의 생각에 그것은 주역의 본뜻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자가 자신의 저술을 정이천의 『역전』(易傳)과 대비시켜 『주역본의(周易本義)』라고 한 것은 그러한 문제 의식에서였다.

주자는 『주역』이 다른 경전과 달리 점을 친다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쓰여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⁴⁾ 주역이 점술서라는 점에서 주역 경문 해석은 그것이 쓰여진 특수한 방법에 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자는 왕필 이래 의리역학자들에 의해 그 의의가 축소되어 버린 「설괘(說卦)」의 物象과 易 해석 이론들을 『주역』

3) 朱熹: “易傳推說得無窮 然非易之本義. 先通得易本指後, 道理儘無窮 推說不妨 便以所推說者去解易 則失易之本指.”(錢穆, 『朱子新學案』 제1권, 171쪽에서 재인용)

4) 『易說綱領』, 『周易傳義大全』: “易本筮之書 後人 以爲止於卜筮, 至王弼 用老莊解 後人 便只以爲理而不以爲卜筮 亦非.”

해석에서 우선 중시할 것을 강조한다.⁵⁾ 『주역』은 모두 「신패」의 物象에 근거하여 점을 판단한 것이며,⁶⁾ 따라서 『역』을 읽을 때에는 먼저 物象과 卦·효사와의 관계를 살펴 경문의 본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⁷⁾ 주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리 역학의 한계를 지적하고⁸⁾ 정 이천과 남리 卦變論(卦變論)과 십이벽체론(十二辟卦論) 및 호체(互體) 등의 양한(兩漢) 상수 역학(象數易學)의 이론들을 탐구하였고, 이를 卦爻辭(卦爻辭) 해석에 적용하였던 것이다.⁹⁾

그러나 주자는 역 해석이 物象이나 卦變 등의 상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부분적으로 한대 상수역 이론을 卦辭 해석에 이용하지만 한대 상수역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은 아니다. 의리역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대 역학이 「신패」의 物象에 고집하여 역학과 무관한 변태한 이론적 천착을 했다는 의리역학자의 비판에 대해서는 주자도 공유하고 있었기

5) 朱熹, 『朱熹集』 권63, 85, 「答劉君房」: “此書本爲卜筮而作, 其言蓋依象數, 以斷吉凶, 其法已不傳. 諸儒之言象數者例皆穿鑿, 言義理者又太汙漫, 故其書爲難說.”

6) 朱熹, 「答劉君房」, 『朱熹集』 권60: “易本爲卜筮而作, 其言皆依象數, 以斷吉凶, 今其法已不傳. 諸儒之言象數者, 例皆穿鑿, 言義理者又太汙漫, 故其書爲難讀, 此本義啓蒙所以作也.”

7) 예를 들어 주자는 乾卦 初九爻의 卦辭인 ‘元亨利貞’을 해석하면서 정이천이 공자 『십이』에 근거하여 네 가지 덕으로 해석한 것을 비판하였다. 공자 『십이』의 하나인 「문언진」에서는 元亨利貞을 사인의 순환 원리를 설명하는 四德으로 해석하였으나, 주자는 그것은 공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른 해석일 뿐이며 경문의 본래 의미는 “크게 행동하지만 올바르게 행해야 이롭다”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8) 『易說綱領』, 『周易傳義大全』: “故王弼曰 義苟應乾, 何必乾乃爲馬 爻苟合順, 何必坤乃爲牛, 而程子亦曰 理無形也 故假象以顯義, 此其所以破先儒膠固支離之失, 而開後學玩辭玩占之方 則至矣. 然觀其意 又似直以易之取象, 無復有所自來, 但如詩之比·興, 孟子之譬喻而已. 如此則是說卦之作, 爲無所與易, 而近取諸身 遠取諸物者, 亦剩語矣. 故疑其說亦若有未盡者.”

9) 나산에서 卦變論은 十四辟卦說을 기초로 추이론(推移論)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된다. 互體說 또한 易理四法의 하나로 중시된다. 나산에서도 취상(取象)과 관련된 漢代 상수역 이론은 제한적으로 수용된다.

때문이다. 주자는 『주역』이 物象에 근거한다는 원칙은 옳은 것이지만 取象의 방법을 완전히 규정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¹⁰⁾ 따라서 주자는 物象에 근거하여 경문을 해석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실패』의 物象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패효사의 象에 근거하여 경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라는 진중적 방법을 제시하였다.¹¹⁾

그러나 다산은 오랫동안의 『주역』 연구를 통하여 『실패』의 物象에 근거한 체계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것을 역리사법(易理四法)이라고 제시하였다. 즉 다산 입장에서는 주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수적 역 해석 방법을 밝혀 냈던 것이 된다. 따라서 다산에게서의 『주역』 해석은 당연 역리사법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산은 이 역리사법이 자신의 새로운 학설은 아니며, 그것은 이미 과거의 역학 이론에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그 원형은 『춘추좌씨전』에 있고, 또 공자와 시대가 가까웠던 한대 역학자들의 이론에서도 그 부분적인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다산은 당대(唐代) 이정조(李鼎祚)의 『주역집해(周易集解)』를 주목한다. 다산이 문제로 삼은 것은 이러한 역 해석의 전통이 왕필을 지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데 있다. 다산에게 중요한 과제는 왕필에 의해 사라진 이 역학의 해석법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다산이 보기에 그러한 연구를 먼저 보여 준 이가 바로 주자였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잊혀져 버릴 위기에 있었던 주역의 해석법을 마치 옛 무덤에서 유물을 발굴해 내듯 주자가 발굴해 냈다는 것이다. 다산에게 주자의 역학은 바로 자신의 역학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소산이 아닌 수 없었다. 그러한 점에서 다산은 주자의 역학을 왕필 이래 어느 역학자의 업적보다도 더 중요

10) 『易說綱領』, 『周易傳義大全』: “易之有象, 其取之有所從, 其推之有所用, 非苟爲寓言也. 然兩漢諸儒, 必欲究其所從, 則既滯泥以不通. 王弼以來, 直欲推其所用, 則又疎略而無據. 二者, 皆失之一偏, 而不能闕其所疑之過也.”

11) 『易說綱領』, 『周易傳義大全』: “『易』之取象, 必有所自來, 而其爲說必已具於太卜之官. 顧今不可復考, 則姑闕之, 而直據辭中之象, 以求象中之意, 使足以爲訓戒, 而決吉凶, 如王氏·程子與吾『本義』之云者, 其亦可矣. 固不必深求其象之自來, 然亦不可直謂假設而遽欲忘之也.”

한 것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주관적 억견이 아닌 경문 자체의 문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해석 방법으로 『주역』을 해석해야 한다는 주자의 문제 의식이 그대로 다산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다산이 주자 역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인정한다 하였지만 그것은 다만 주자가 역리사법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일 뿐 주자가 역리사법이라는 해석 방법에 의해 『주역』을 일관되게 해석했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주자는 자신의 저술이 『주역』의 본래 의미를 밝혔다는 자신감에서 『주역본의』(周易本義)라고 하였지만 다산은 『주역본의』의 해석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다산은 『주역본의』를 대신하여 역리사법에 근거한 『주역사전』(周易四箋)을 새롭게 저술하였던 것이다.

Ⅲ. 주자 역학에 대한 평가 2

정약용은 『역학서언』의 「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¹²⁾이라는 또 다른 논문에서 주자의 역학 이론을 언급하고 있다. “소자선천론”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듯 이 논문은 소 강철의 선천 역(先天易)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 있는 “논소씨팔괘차서지도(論邵氏八卦次序之圖)” · “논소씨팔괘방위지도(論邵氏八卦方位之圖)” · “논소씨팔괘선천지설(論邵氏八卦先天之說)” · “논선천횡도구육칠팔설(論先天橫圖九六七八說)” · “논본의건곤책수지의(論本義乾坤策數之義)” · “논하도낙서삼천양지지의(論河圖洛書參天兩地之義)” · “논하도노소호장지법(論河圖老少互藏之法)” · “논하도위팔괘지칙(論河圖爲八卦之則)” 등의 소논문들은 모두 주자 『역학계몽(易學啓蒙)』과 『주역본의』의 「역설강령(易說綱領)」의 내용들로, 실제로는 주자의 역학 이론을 비판한 글이다.¹³⁾ ‘선천역설’은 소 강철이 주장한 이론이지만 그것

12) II-46-287 ~40ㄴ, 『易學緒言』, 「邵子先天論」.

13) 『역학서언』은 일종의 역학사에 대한 비판서이기 때문에 시대순으로 역학 이

을 ‘하도낙서’와 결합시켜 하나의 역학 이론 체계를 수립한 것은 주자이기 때문이다.

주자는 『역학계몽』을 지은 취지에 대해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하도낙서와 선천역실에 관한) 이상의 다섯 조목은 내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다시 나머지 이본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학설이 아니라 소 강절의 학설이며, 소 강절의 학설이 아니라 회이(希夷)의 학설이고 회이의 학설이 아니라 공자의 학설이다. 그러나 오늘의 여러 유학자들에 있어서는 그 진승이 이미 끊어졌고 방외의 학자 사이에서는 은밀히 서로 주고받아 연단의 술로 삼았다. 회이(希夷)와 상직(康節)에 이르러 역학으로 돌이켜 그 후 그 학설이 비로소 다시 세상에 밝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주역』의 차례와 배열이 낡았기 때문에 독창적 견해를 늘리는 대부분 이해할 수가 없이 믿지 못하고 단지 현행의 주역에 의기하여 망문생의하고 전착하고 분석하여 두관함이 매우 많았다. 이것이 내가 『역학계몽』을 지은 이유이다.¹⁴⁾

앞서 언급했듯이 주자는 『주역』을 점을 위한 복서로 보기에 접치는 절차筮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은 가졌으며, 또한 서법의 원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전의 성리학자들에 의해서는 배겨되었던 도서역(圖書易)과 소 강절(邵康節)의 상수역을 담기¹⁵⁾ 하였다. 그리고 주자는 하도낙서와 선천 역이 비록 그 기원을 달리하지만 이를 자신의 역학 체계 내에서 통합시켰고, 역리(易理)를 선천 역과 하도낙서로부터 설명하였다. 주자는 하도와 선천 역이 역 창작의 원리를 설명한다

문을 다루고 있는데, 소 강절이 주희보다 앞선 시대에 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소자선천론」을 「주역본의발미」 다음에 다루고 있는 것은 「소자선천론」이 소 강절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주자의 역학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14) 『朱熹集』 권38, 答袁機仲, 1686쪽: “以上五條, 鄙意傾倒無復餘蘊矣. 然此非熹之說, 乃康節之說. 非康節之說 乃希夷之說 非希夷之說, 乃孔子之說. 但當日諸儒既失其傳, 而方外之流陰相付受, 以爲丹籠之術. 至於希夷·康節, 乃反之於易, 而後其說始得復明於世. 然與見今周易次第行列多不同者, 故聞者創見, 多不能曉而不之信, 只據日今見行周易緣文生義, 穿鑿破碎, 有不勝具杜撰者. 此『啓蒙』之書所爲作也.”

15) 참조: 戶田豊三郎, 「朱子の易經觀と周易本義の特質」(『廣島大學文學部紀要』第26巻 1號, 1966), 144-147쪽.

고 확신했었다. 주자는 「계사전」의 “하늘이 신물(神物)을 만들어 낸 것을 성인이 본받았다”¹⁶⁾는 구절의 신물을 하도낙서로 해석하였고, 하도낙서의 수리가 바로 천지의 변화를 수리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¹⁷⁾ 따라서 비록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도와 선천 역을 역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던 것과는 달리 주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학에 수용하였다. 주자는 하도낙서의 수리가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¹⁸⁾

『역학서언』의 「소자선천론」은 모두 여덟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소 강질의 선천역설에 대한 비판과 하도낙서를 근거로 주역의 역리를 설명한 주자의 설에 대한 비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논소씨팔괘차서지도”·“논소씨팔괘방위지도”·“논소씨팔괘선천지설”이 세 편은 소 강질의 선천역설에 대한 비판이고,¹⁹⁾ 나머지 “논선천황도구육칠팔설”·“논본의건곤책수지의”·“논하도낙서삼천양지지의”·“논하도노소호장지법”·“논하도위팔괘지칙” 다섯 편은 선천 역과 하도낙서가 역의 수리(數理)에 대한 기본 원리가 된다고 하는 주자의 이론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다.²⁰⁾

16) 『繫辭傳』 11장, 是故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17) 『朱熹集』 권38, 答袁機仲, 1677쪽: “大抵聖人制作所由, 初非一端, 然其法象之規模, 必有最親切處. 如鴻荒之世, 天地之間陰陽之氣雖各有象, 然初未嘗有數也. 至於河圖之出, 然後五上有五之數奇偶生成, 燦然可見. 此其所以深發聖人之獨智, 又非汎然氣象之所可得而擬也. 是以仰觀俯察, 遠求近取, 至此而後, 兩儀, 四象, 八卦之陰陽奇偶可得而言. 雖『繫辭』所論聖人作易之由者非 ; 而不害其得此而後決也.”

18) 『주희집』 권38, 答袁機仲: “熹於世傳『河圖洛書』之舊所以不敢不信者, 正以其義理不悖而證驗不差爾.”

19) “論邵氏八卦次序之圖”와 “論邵氏八卦方位之圖”는 소 강질의 차서도와 방위도가 어떤 점에서 불합리한지를 지적하고 비판한 글이다. 그리고 “論邵氏八卦先天之說”은 소 강질의 선천역설이 문헌적 근거로 삼고 있는 「계사전」과 「설괘전」의 내용이 소 강질이 주장하는 선천역설의 문헌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한 것이다.

20) 이 다섯 편은 위 세 편과는 달리 모두 ‘朱子曰’로 시작하는 주자의 주장을 비

소 강절의 선천역신에 대한 비판에서 다산은 “선진팔괘차서도”와 “선진팔괘방위도”가 소 강절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과 논리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비판한다. 선진팔괘차서도에서는 음양에서 태양·태음·소양·소음의 四象이 생겨나고 이 四象으로부터 나시 乾天·二兌澤·二離火·四震雷·五巽風·六坎水·七艮山·八坤地의 관괘가 순시대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나산은 내양·내음·소양·소음이라는 용어가 점을 쳐서 얻어진 각 획을 분류하는 명칭이지 만물의 발생 과정의 어떤 존재물을 지칭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²¹⁾ 만약 내양·내음·소양·소음이 존재물에 대한 명칭이라면 그런 사물들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존재물이 있는냐고 다산은 반문한다.²²⁾ 또한 설사 그러한 존재물을 가정하더라도 양에서 태양 이외에 소음이 나왔다가나 건곤이라는 부모괘에 앞서 여섯 지식괘가 나왔다는 등의 논리의 불합리한 점을 들어 “선천차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한다.²³⁾ 선천방위도에 대해서 다산은 소 강절이 아무리 신통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복회팔괘방위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²⁴⁾ 선천방위도가 자연의 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소 강절의 견해에 대해 그 내용이 인륜(人倫)의 차례와 생물의 이치가 모두 부합되지 않는 것임을 비판한다.²⁵⁾ 나아가 다산은 소 강절이 선천역신을 주장하기 위해 「신패진」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신패진」의 내용은 선천역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논소씨팔괘선천지신”에서 상세히 언급하였다.²⁶⁾

관한 글이다.

21) II-46-28ㄴ, 「邵子先天論」.

22) II-46-39ㄴ, 「邵子先天論」.

23) II-46-28ㄴ, 「邵子先天論」.

24) II-46-28ㄴ, 「邵子先天論」 “邵子雖靈通, 何以知夫伏羲八卦之方位 與文王錯然相反, 若是其明白無疑也.

25) II-46-30ㄴ-31ㄴ, 「邵子先天論」.

26) II-46-31ㄴ, 「邵子先天論」.

“논선진황도구육칠팔십”·“논본의건곤책수지의”·“논하도낙서삼진양지지의”·“논하도노소호장지법”·“논하도위팔폐지칙” 다섯 편은 주자가 「계사전」에 나오는 서법(筮法)의 역수(易數)를 설명하면서 이를 선진 역과 하도에 근거하여 설명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계사전」의 서법과 관계된 수리(數理)에 대한 해석은 폐효사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역학자의 존재관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으며, 특히 논란이 되어 온 것은 天地之數 와 人衍之數²⁷⁾에 관련된 해석이었다. 주자는 「계사전」에 나오는 역수가 단지 역학에 한정된다고 보지 않았고, 이를 자연의 범칙적 토대에서 설명하려 했으며, 이는 하도낙서와 선천 도가 바로 자연의 원리를 수리적으로 나타낸다는 생각에서 「계사전」의 역수에 대해 하도낙서와 선천도를 근거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주자는 노양수 9·노음수 6·소양수 7·소음수 8에 대해 소 강선의 선천황도를 근거로 설명한다. 즉 선천황도에서 노양·노음·소양·소음이 각각 1·4·3·2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완전수 10에서 자신의 위치 수 1·4·3·2를 각각 빼는 방법으로 노양·노음·소양·소음 수 9·6·7·8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다산은 우선 노양·노음·소양·소음이 각각 1·4·3·2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선천황도의 논리를 우선 반이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완전수 10에서 자신의 위치 수를 뺀다 9·6·7·8의 수가 나왔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²⁸⁾ 또 주자는 건곤의 책수가 각각 216과 144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이를 하도의 四象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산은 하도가 주역 팔괘와는 무관함을 강조한다.²⁹⁾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 강선의 선천 도와 하도를 결합해서 역의 수리를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역학에서 가장 큰 분제가

27) 「繫辭 上」9: “大衍之數五十，其用四十有九，分而爲二以象兩，掛一以象三，揲之以四以象四時，歸奇於扚以象閏，五歲再閏，故再扚而後掛，天數五，地數五，五位相得而各有合，天數二十有五，地數三十，凡天地之數五十有五，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

28) II-46-34v-35r, 「邵子先天論」.

29) II-46-35r-36v, 「邵子先天論」.

아닌 수 없다고 지적한다.³⁰⁾

다산은 「계사진」의 역수가 모두 점과 관련된 '수리적 조작'이라고 보며, 이것이 천지 자연의 법칙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리하여 다산은 신시법(揲蓍法)과 관련된 수리를 존재 문제와 관련해 신명하는 주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산은 천지지수 55란 서수에 새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합한 것이며, 대인지수 50은 50개의 衍卦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주자는 '參天兩地'를 상황하게 해석하지만, 다산은 양획이 음획에 비해 길이가 3:2의 비율만큼 크다는 것에 직안해 천수 즉 양수는 3으로, 지수 즉 음수는 2로 정해 놓은 것 이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즉 '參天兩地'란 서법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³¹⁾ 또한 노양수 9·노음수 6·소양수 8·소음수 7은 이 參天兩地의 규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다. 노양수 9란 서법에서 3번하여 얻은 괘의 그 획이 모두 양의 수가 나온 경우이고, 노음수 6은 세 번 모두 음의 수가 나온 경우를 가리키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노양·노음·소양·소음은 전적으로 서법의 결과와 관계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四象은 소 강절이 주장하듯 노양·노음·소양·소음이 아니며, 신시법에서 괘를 나눌 때 四時를 본뜬 것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다산은 성인이 괘를 창작하는 데 천지 만물의 생성 과정을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다산은 「계사진」의 '太極生兩儀 兩儀生八卦'의 문장이 비록 신시법에 대한 언급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동시에 만물의 생성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고 신명한다. 즉 태극에서 천지로, 다시 천지에서 天地水火의 네 氣로 분할되어 나오는

30) II-46-34~35, 「邵子先天論」, 總之九六七八者 卦畫之所以變與不變也. 與水火生成之數 太極判判之理 都不相當. 先儒取此 蓍卦之家 至要至切之數日移以冒之於水火生成之數 太極判判之道 而及其揲蓍以求卦也 仍不知何者爲九何者爲六 何者爲七 何者爲八 試問之以乾初九 坤初六之義 皆相顧愕眙 不能置對 (中略) 是知太極橫排之圖 河圖配搭之法 皆易學之大節 不敢不辯.

31) II-46-37, 「邵子先天論」 然其在周易, 直據卦畫, 亦可以參天兩地. 蓋柔畫中斷, 較之剛畫, 得三分之二, 纔非必別求異義.

과정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산은 이것을 근거로 역학의 원리가 천지 자연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산이 보다 주목하는 것은 성인에 의해 제해석되어 부여된 64괘의 내적 관계이다. 다산은 64괘의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를 벽괘(辟卦)와 연괘(衍卦)로 설명한다. 14벽괘³²⁾가 자연의 순환을 상징한다면, 이에 대해서 50연괘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그 변화의 지배를 받는 만물을 상징한다고 한다.³³⁾ 「주역」이 자연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만물의 변화와 인간의 운명을 점친다는 점에서 다산은 벽괘와 연괘의 관계가 점서로서의 역의 성격에 가장 잘 표상한다고 보았다. 14벽괘와 50연괘는 四時의 변화와 그 속에서 변화하는 만사 만물(萬事萬物)의 변화 모습을 상징적으로 고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짐을 고는 행위 또한 시간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운명을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산은 괘를 구하는 서법(筮法) 또한 추이론과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었다고 파악한다:

“괘를 구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64괘 가운데 한 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50연괘의 象을 보사한 것으로써 시책을 삼는다. 그런 다음 이 50괘가 어디로부터 생기던 것인가를 묻는다. 그것은 12벽괘로부터 펼쳐진 것이다. 이에 다시 넷씩 세이 떨어내는 것으로 (12벽괘 즉 四時를) 본받는다. 그런 다음 四時가 있다면 어떻게 응답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고(「요전(堯典)」에 이르기를 ‘윤달모써 사시를 정한다’고 하였다), 이에 다시 나머지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는 방법으로 그것을 본받는다(중부괘(中孚卦) 소과괘(小過卦)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속에는 64괘의 象이 모두 함께 있는 것이 되고, 이에 비로소 진명이 그 象을 잡아 그 하나를 가

-
- 32) 다산은 辟卦·衍卦論이 漢代의 12辟卦說을 수용하되 현대에서는 雜卦로 분류되던 小過卦와 中孚卦를 辟卦에 추가하여 모두 14辟卦를 주장한다. 그는 小過卦와 中孚卦를 추가하면서 辟卦의 의미를 天·地·水·火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정립한다. 12辟卦가 사계절의 변화를 상징한다면, 小過卦와 中孚卦는 5년에 두 번 있는 윤월을 상징한다.
- 33) 정약용은 衍卦에 대해서도 문헌적 증거를 입증하지는 못하였으나 「계사진」의 大衍之數 50을 근거로 14辟卦를 제외한 50괘가 衍卦라고 주장한다.

리키게 되는 것이다.”³⁴⁾

다산은 이처럼 64괘 사이의 구조뿐만 아니라 점치는 절차도 四時를 상징하여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설시의 방법은 太極·兩儀·四象으로의 만물의 발생 과정을 기초로 한 것이지만, 동시에 시간의 변화 가운데 하나의 괘가 일어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인은 64괘 사이의 관계에서 四時卦호시의 벽괘와 이를 부인한 인괘의 구조를 발견하였고, 이것은 설시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점을 본다는 것이 또한 시간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문제를 짐치는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도록 하였다. 이런 점에서 다산의 역학은 역사학적(曆數學的) 역의 성격을 갖는다.³⁵⁾

“천지 사이의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운행과 산천 초목 조수의 무리로부터 우리네 사람의 생양동지(생양동지)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도 四時를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주역」의 전체 大用이 오직 12배의 변동 왕래에 있는 것이고 설시법도 반드시 그것을 본뜬는 것이다.”³⁶⁾

역은 비록 자연의 변화를 반영하여 만들어졌지만, 역에 반영된 자연은 자연의 변화이지 수리직 범칙이 아니다. 역은 유양의 변화 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주자는 역의 수리를 자연의 원리에서부터 도출하고자 하였지만, 다산은 주역의 짐짐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해석하였던 것이다. 다산은 자연에 내

34) 『周易四箋·著卦傳』, 『與猶堂全書』 Ⅱ-44-17: “求卦之法如是者 謂吾之所求獲者 卽六十四卦之中一卦也. 故五「衍卦之象 必先摸擬之以爲策 既而曰是五「卦者何從生乎. 是唯「十二辟之所衍也. 於是乎復爲揲四之法以象之 既而曰是四時 豈可無問乎(堯典云以閏月定四時)於是乎復爲歸奇之法以象之(象中孚小過)卽此二法之中六十四卦之象 悉悉俱存矣. 神明於此 始可以執其象而指其一也.”

35) 李乙浩, 『茶山の 易學』(민음사, 1993), 331쪽.

36) 『周易四箋·著卦傳』, 『與猶堂全書』 Ⅱ-44-17: “蓋唯天地之間 日月星辰之行 山川草木鳥獸之類 以至吾人之生養動止 莫不隨四時而變遷 故一部易全體大用 唯在乎十二辟卦之變動往來 而揲著之法必又象之也.”

한 원리적 해명 없이도 역수(易數)를 서법(筮法)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으며, 주역을 일체의 원리로부터 해석하려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였던 것이다. 다산은 「주역본의발미」에서는 역리사법을 근거로 주자의 역을 평가하였고, 「소자선천론」에서는 「계사전」의 역수를 꽤 창작의 원리 [畫卦之理]로 보고 이를 하도낙서를 근거로 정당화한 이론에 대한 비판이라 할 것이다.

IV. 모기령 비판과 주자 역학 정론

주자가 『역학계몽』에서 전개한 선천 역과 도서 역을 중심으로 한 신상수역설은 이후 명대를 거쳐 청대에까지 역학의 주류적 이론으로 자리잡는다.³⁷⁾ 그러나 청대의 모기령과 호위에 이르면 주자의 신상수역설은 본격적 비판에 직면한다. 이미 청초에 황중희와 황종업(黃宗炎, 1616~1686) 형제는 각각 『역학상수론(易學象數論)』과 『도서변혹(圖書辨惑)』을 저술하여 송대의 도서 역을 비판하였으나, 모기령은 보다 철저하게 주자의 신상수역을 비판한다. 모기령은 『하도낙서원천편(河圖洛書原舛編)』과 『태극도설유의(太極圖說遺議)』를 저술하여 하도낙서가 후대에 조작된 설이라는 것을 논증하였다.³⁸⁾

좀더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주자의 신상수역학에 대한 비판에서 모기령과 다산은 공통되는 점이 많다. 무엇보다 「계사전」의 수리(數理)를 서법(筮法)과의 관계에서만 한정하여 해석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즉 꽤의 창작원리 [畫卦]로 보지 않고 서법에서 꽤를 얻는 방법(生卦)으로 본다. 하지만 주자는 「계사전」의 수리를 획괘(畫卦)의 원리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37) 청초에 나온 이광지가 편찬한 『주역절중』은 주희 역학을 계승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이었다.

38) 廖名春·康學偉·梁韋弦, 『周易研究史』(湖南出版社, 1991):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에문서원, 1994), 573쪽.

자연의 법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 선진 도나 하도낙서를 근거로 신명하였다. 다산과 마찬가지로 모기령은 『계사진』의 수리를 점을 쳐서 괘를 얻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상에서는 복희가 괘를 그린 것이 진씨(陳氏)가 전해 준 선진의 실과 같다고 한다(소 강절의 선진 노는 신단(陳搏)이 전해준 것이므로 진씨라고 하였다). 兩으로부터 四로, 八로, 十六으로, 三十二로, 六十四로 되는 것이 괘를 그리는 처음과 끝이 되는가? 대개 兩儀와 四象은 생괘(生卦: 점을 쳐서 괘를 얻는 것)의 차례이지 획괘(畫卦: 복희가 처음 괘를 그린 것)의 차례가 아니다. 인하여 거듭한다는 것은 삼획괘 보씨 거듭한 것이지 2가 1로 거듭하고, 4가 2로 거듭하고, 8이 4로 거듭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므로 괘를 이룬 것을 보면 2에서 4로, 4에서 8로, 8에서 64로 이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괘를 그린 것에 나아가 보면 그렇지 않다. 대개 복희는 팔괘를 그렸을 뿐이다. 이제 일찍이 64괘를 그렸었는가?”³⁹⁾

모기령과 다산은 주자의 신상수역학에 대한 비판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제기한 역학 이론에서도 많은 부분 일치한다. 예를 들어 다산은 『주역』의 핵심 이론은 ‘추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기령이 이미 주장한 것이었다.⁴⁰⁾ 비록 연괘(衍卦)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유취(類聚)와 군분(群分)을 기준으로 벽괘와 그 나머지 괘를 구분하는 것은 모기령이 제기한 것이었다.⁴¹⁾ 다산은 그의 역학이 유

39) 毛奇齡, 『仲氏易』, 『文淵閣四庫全書』 41-185 하: “然則何以知變易交易伏羲氏之易. 夫世信以爲伏羲畫卦, 如陳氏所授先天之說(邵子先天圖爲陳搏所授 故稱陳氏). 由兩而四而八而十六而三十二而六十四爲畫卦之終始乎? 夫兩儀四象者, 生卦之序也. 非畫卦之序也. 因而重之者以三重三, 非謂二可重一, 四可重二, 八可重四也. 故就其成卦而觀之, 則由兩而四, 由四而八, 由八而至六十四, 未爲不可, 而就其畫卦而觀之, 則不然. 夫伏羲但畫八卦耳. 何曾畫六十四卦乎.”

40) 毛奇齡, 『推易始末』 卷1-1: “周易者移易之書也. … 所謂剛柔相推 則移之也. 推者移也. 而總以二語概之曰, 方以類聚. 物以羣分. 然後推移之旨全焉.”

41) 毛奇齡, 『易小帖』, 『文淵閣四庫全書』 41-570 상: “十二辟卦 十二月卦也. 自復不夬而爲乾, 自姤不剝而爲坤. 凡十二卦配十二月, 每一卦爲一月之主. 辟者君也主也, 謂主一月之卦也. 若推易之法, 則適以此十二卦爲聚卦, 爲他卦移易之主亦名十二辟卦.”

배 후 『춘추좌씨전』을 읽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산의 역학 사상은 다른 이보다 학자보다도 모기령의 역학과 공통된 부분이 많다.⁴²⁾

그런데 이런 주자 역학에 대한 비판과 역학 이론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모기령의 역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⁴³⁾ 다산은 모기령 역학의 주요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주자의 신상 수역학에 대한 모기령의 비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또 모기령의 역학 이론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도 없다. 도리어 주자의 연구 업적을 가렸다는 점을 들어 모기령을 비판한다:

“추이설(推移說)은 한나라 유학자들이 모두 말하였고, 또 우중상·순자명·후파·촉재 등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확실한 지론이 있었다. 다만 그 설이 기이한 것에 치우쳐 완전하지 못하였는데 주자의 괘변도(卦變圖)에 이르러서야 대의(大義)·대례(大例)가 명백해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 모기령은 옛 사람의 자칫한 말들을 주워 모아 주자의 큰 공적을 가리었으니 그 마음씀이 진실로 공평하지 못하다 하겠다.”⁴⁴⁾

42) 신원봉은 다산의 역학에 미친 모기령 역학의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그런데 그는 다산의 「매씨서평」에서 모기령을 평가한 대목 중 “理尙是也, 其是者是之已矣”를 “말이야 비록 옳지만 옳은 것은 옳은 것일 뿐이나”라고 번역하면서 다산이 모기령의 이론을 논리적으로는 공감했다고 진제하고 두 이론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모기령이 다산의 역학에 영향을 주었나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산과 모기령 역학의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소홀히 된 것이 없지 않다. 모기령의 추역표와 다산의 추이표를 비교하면서 모기령의 추이표를 구성하는 ‘不易卦’와 ‘子母易卦’의 추이는 언급하지 않고 동일성만을 강조한 것이 그 예이다. 신원봉, 「다산의 역학관 정립에 미친 청대 사상의 영향: 모기령을 중심으로」, 『다산학』 3권, 2002, 148쪽.

43) 앞서 「매씨서평」의 구성은 모기령의 宋儒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것을 지적한 표현이지 논리적 공감의 표현은 아니다.

44) 「題毛大可子母易卦圖說」, 『與猶堂全書』 I-14-40~41: “推移之說, 漢儒皆能言之. 又如虞仲翔·荀慈明·侯果·蜀才之倫, 皆有確指, 但其說偏畸不完. 至朱子卦變之圖, 而其大義大例, 始章顯人目矣. … 乃毛奇齡者, 撮拾古人之零言, 以掩朱子之大功, 其心術固已不公矣.”

주자가 패변신을 역 해석 방법의 하나로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이론을 역학의 핵심 이론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64괘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시도한 것은 주희가 아니라 모기령이었다. 그런데도 다산은 추이론이란 한데 역학자들이 주목한 것이었고, 이후 추이론의 이론적 의의와 내용을 주자가 밝혔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모기령의 연구 업적을 축소할 뿐 아니라 도리어 주자의 공적을 가리었나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다산 자신도 모기령과 동일한 논리로 주자의 신상수역학을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기령이 주자의 업적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기령을 비판하는 다산의 태도는 사실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다산이 이른바 주자 역학의 정론(定論)을 주장하면서 신상수역학이 주자의 이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이다. 다산은 60세에 지은 자신의 묘지명⁴⁵⁾과 「소자선천론」에서 반복하여 주자 역학의 정론을 주장하였다. 즉 다산은 “주자가 왕자합(王子合)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자가 소 강절의 선천팔괘설(先天八卦說)에 대해 비판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역학계몽」의 내용은 주자의 정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⁴⁶⁾ 다산의 이 주장은 너무도 확고한데 『주역』을 시(詩)로 읊고 있는 다음의 글에서도 거듭 밝히고 있다:

“先天圖書得姬周 ⁴⁷⁾	선천도가 그려져 문왕의 후천도를 정시하니
順逆安排咫尺愁	순역(順逆)의 안배가 지척의 근심거리였는데
一紙曾酬王子合	일찍이 왕자합에게 준 편지 한 장에서 내린
晦翁定論 ⁴⁸⁾ 照千秋	회옹(朱熹)의 정론이 천추에 빛나도다. ⁴⁹⁾

45) 「自贊墓地銘」, 『與猶堂全書』 I-16-14~15: “先天卦位, 於理不合. 朱子答王子合書, 在所表章也.”

46) 「易學緒言·邵子先天論」, 『與猶堂全書』 II-46-297: “朱子答王子合書曰 康節說伏羲八卦乾位本在南 坤位本在北 文王重易時更定此位 其說甚長 大概近於傳會穿鑿 故不曾深留意 然說卦所說卦位竟亦不能使人曉然 此當闕之 不必彊通也.”

47) 姬周: 姬姓인 周 文王을 말한다.

48) 주자는 문인인 王子合이 팔괘 방위에 대해 묻자, “康節이 말하길 복희씨의

다산은 소 강절이 주장한 복희 팔괘도에 대해 주자가 비판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선친역신이 주자의 주장이 아님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즉 다산은 주자 역학에서 소 강절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소 강절의 선친역신을 수용하여 주자가 그의 역학 체계를 수립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다산이 왜 이렇게 주자 역학의 정론을 내세우면서까지 주자의 역학에 대한 입적을 높이려는 것일까?

이 분제는 다산의 정치적 지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다산에 있어 주자의 존재가 단지 부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해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다산의 경학 연구가 주자학에 대한 비판 못지 않게 당시의 주자학 경시 풍조에 대한 비판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⁰⁾ 다산 당시는 주자학의 학문적 권위가 쇠퇴하는 가운데 다양한 사상적 모색이 시도되었고, 그러한 속에서 주자학에 대한 비판은 이미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 모기령은 바로 주자학 비판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산은 주자학에 대한 비판 못지 않게 모기령으로 대표되는 주자학 경시 경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다산이 모기령에 대한 비판을 자신의 학문적 사명으로 의식하고 있

팔괘에 乾의 위치는 본래 남쪽에 있고 坤의 위치는 본래 북쪽에 있었는데 문왕이 『주역』을 재정리할 때 이 방위를 바꾸었다.'고 하였다. 그 설이 매우 긴데 대체로 부회와 천작에 가깝기 때문에 나는 일찍이 거기에 깊이 유념한 적이 없다. 그러나 『說卦』에서 말하는 卦位를 끝내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없게 하니 또한 의당 이금 보류해 둘 것이요 억지로 통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八卦之位如何?” “康節說, ‘伏羲八卦乾位本在南, 坤位本在北, 文王重易時, 更定此位’ 其說甚長, 大概近於傳會穿鑿, 故不曾深留意. 然『說卦』所說卦位竟亦不能使人曉然, 此當闕之, 不必彊通也.”(『答王了合』, 『朱熹集』卷 49) 다산은 이 편지를 근거로 소 강절의 선친도에 대한 비판이 주자의 정론이라고 주장하였다.

49) I-7-477, 『經義詩』-易經.

50) 야마우찌 코오이찌(山内弘)은 조선의 실학을 청대 고증학 및 일본 고학파 비교하면서 정약용·김대순 등의 실학사들이 주자와 주자학을 옹호한 점이 조선 후기 실학의 특징이라고 평가한다. 山内弘 (김영우 옮김), 『이조후기 지식인의 반주자학 비판의 한 사례』, 『전통과 현대』(2000년), 234-266쪽.

있던 전에서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의리를 헤아리지 않고 정수(程朱)에 배치되는 것을 즐겁게 여긴 자는 오직 모기령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문벌없고 편협하여 몇몇한 이치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⁵¹⁾

나산은 성리학이 분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성리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성리학의 학문적 목표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산에 의하면, “성리학은 道를 알고 자신을 알아서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⁵²⁾이다. 문제는 이기론을 둘러싼 그들의 사민적 논쟁이다.⁵³⁾ 비록 성리학이 경전 해석에서는 개념적 혼동을 범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개념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성리학의 문제 의식만큼은 다산도 공유했던 것이다.⁵⁴⁾ 다산은 주자학이 갖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지만 그렇다고 당시의 주자학 비판 경향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다산에게 비판이란 학문적 탐구의 출발이었지 목적은 아니었다. 그의 목적은 당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증적 학문의 확보였지 비판을 위한 학문 연구가 아니었다. 그러한 점에서 모기령의 학문은 그 박학과 고증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세상에서는 ‘모기령이 주자의 실을 헐뜯고 배척한 것은 말은 비록

51) 『茶山問答』(6), 『文山集』 권11: “自古以來, 不揆義理, 甘心於背馳程朱者, 唯見毛奇齡一人. 此人狂悖偏隘, 非復常理.”

52) 『五學論』, 『與猶堂全書』卷11-19: “性理之學, 所以知道認己, 以自勉其所以踐形之義也.”

53) “今之爲性理學者, 口理, 口氣, 口性, 口情, 口體, 口用, 口本然氣質, 理發氣發, 已發未發, 單指兼指, 理同氣異, 氣同理異, 心善無惡, 心善有惡, 三幹五極, 千條萬葉, 毫分縷析, 交噴互噴, 冥心默研, 盛氣赤頰, 自以爲極天下之高妙. 而東振西觸, 提尾脫頭, 門立一幟, 家築一壘, 畢世而不能決其訟, 傳世而不能解其怨.”

54) 이같은 사실은 나산이 理發·氣發과 같은 논쟁이 무가치함을 지식하면서도 퇴계와 율곡의 理發氣發 논쟁의 의의를 분석하는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全書』 I-12, 『理發氣發辨』 참조.

어그리었으나 이치는 간혹 분명한 것도 있다.’고 한다. 나도 또한 일찍이 그의 실을 견주어 보고 사실을 밝혀 보았다. 대개 그 학술은 오로지 한대의 참위실에 영향을 받아 위서에 있는 황당하고 괴이한 주장을 번잡하게 인용한 것이었는데도 사림들은 고증이 해박한 것을 보려는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 하물니 그가 쓴 『만수진』·『인상사』 등은 그 문장이 비천한 광대들의 짓과 나를 마 없어 진혀 유사(儒者)의 기상이 아니다. 또 그의 종조부가 왕 양명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심법을 전수받아 이치럼 바른 것을 험뜯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안고부터는 주자가 친지와 사시가 되는 것을 믿게 되었고, 하루 산이가 나무를 흔들려고 하는 것을 한심하게 여기며 비웃게 되었다.”⁵⁵⁾

다산은 비록 주자학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 정신에서는 주자의 학문적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다산이 파악하는 주자의 의의가 기존의 심리학자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⁵⁶⁾

“주자가 언제 그와 같은 적이 있었는가? 주자는 육경(六經)을 깊이 연구하여 진위(眞僞)를 판별하였고, 사서(四書)를 표장(表章)하여 깊은 뜻을 열어 보았다. 조정에 들어가 관각(館閣)의 벼슬에 임명되어서는 옳바른 말과 격렬한 논쟁으로 생사(生死)를 돌보지 않은 채 임금의 숨겨진 과실을 비방하고, 권신(權臣)들의 끼리는 인도 행하였으며, 천하의 대세(大勢)에 대하여도 논하였다. 군사상의 기묘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논하면서 복수(復讐)하여 부끄러움을 씻음으로써 대의(大義)

55) 「答李羅州(寅慶)」, 『與猶堂全書』 I-19-4: “世稱毛奇齡, 詆斥朱子之說, 語雖乖悖, 理或明的. 鏞亦嘗比觀而照勘矣. 蓋其學術, 專襲於漢儒讖緯之說, 而雜引其曠古荒怪之談, 人見其考據之博, 驚怯喪膽而云然也. … 況其曼殊傳·蓮廂詞等作, 無異倡優下賤, 大非儒者氣象, 而其從曾祖, 卽王陽明之親徒, 故傳其心法, 而爲此醜正之論也. 知此而後, 益信朱子爲天地間時, 而藐然顧笑於蚍蜉之撼樹也.”

56) 심경호는 보기령의 정확에 대한 다산의 비판을 평가하면서 “다산이 보기령의 훈고 고증의 방법을 참고로 하되 의리의 문제, 실천의 문제와 동떨어진 지식학은 배격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심경호, 「정약용의 시경본과 청조학술」, 『다산학』 제3호, 2002, 198쪽). 그런데 문제는 다산의 정확이 어떻게 고증의 방법을 중시하면서 의리의 문제와 실천적 문제를 포괄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다산의 정확이 정대의 고증학과 달리 고증을 넘어서 실천적 측면이 강조될 수 있는 형이상학에 의해 정초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명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를 친추 만세에 퍼고자 하였다. 외직에 나아가 주군(州郡)의 장관이 되어서는 인자한 규범을 세우고 백성들의 은미(隱微)한 고통을 속속들이 살펴 부역(賦役)을 공평하게 하고 흉년과 역병(疫病)을 구제하였다. 그 큰 강령과 작은 조부는 충실히 나라도 다스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출처(出處)가 분명하여 조정에서 부르면 나아가고 파면시키면 돌아와 은거하였다. 그러면서도 임금을 사랑하는 애뜻한 정은 간히 잊은 적이 없었으니, 주자가 언제 지금 선비들같은 짓을 한 적이 있는가. 지군 시속(時俗)의 학문에 빠져 있으면서도 주자를 끌어내어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자들은 모두 주자를 모함하는 사람들이다. 주자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는가. 비록 이들이 외모든 꾸미고 행실에 제재금 가하는 것이 방종(放縱)하고 음란(淫亂)한 자들보다는 나은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행이 없는 고요한 마음으로 스스로 옳다고 오만을 떨고 있으니, 끝내 이들 성리학하는 사람과는 같이 손잡고 요순(堯舜)과 주공(周公) 공자(孔子)의 문하로 들어갈 수 없다.”⁵⁷⁾

다산이 이상으로 삼았던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학문으로 함께 갈 수 있는 학자는 바로 주자였던 것이다. 다산은 주자라는 인물의 유학자적 삶은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주자를 무정의 대상이 아닌 계승의 존재로서 수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산의 이러한 생각은 역학에서도 다산이 모기령처럼 주자의 역학을 무조건 비판하는 관점에서 서기보다는 주자 역학의 역사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다산은 주자가 비록 완결된 해석 체계를 갖지는 못했지만 이미 새로운 해석 체계를 규명해 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자 역학에 대해 높이 평가할 수 있었다.⁵⁸⁾ 이와 같은 평가는 해동·

57) 『五學論』 1, 『與猶堂全書』 1-11-20: “朱子何嘗然哉。研磨六經，辨別眞僞，表章四書，開示蘊奧。入而爲館閣，則危言激論，不顧死生，以攻人主之隱過，犯權臣之忌諱，談天下之大勢。滔滔乎軍旅之機，而復讎寧恥，豈以伸大義於千秋。出而爲州郡，則仁規慈範，察隱察微，以之平賦徭，以之振凶托。其宏綱緝日，有足以措諸邦國。而其出處之正也，召之則來，捨之則藏。拳拳乎君父之愛，而莫之敢忘，朱子何嘗然哉。沈淪乎今俗之學，而援朱子以自衛者，皆誣朱子也。朱子何嘗然哉。雖其修飾邊幅，制行辛苦，有勝乎樂放縱邪淫者，而空腹高心，傲然自是，終不可以攜手同歸於堯舜周公之門者，今之性理之學也。” 참조: 민족문화추진회 편역, 『국역 다산시문집』 5.

58) 장야옹은 『周易四義』의 첫 장에서부터 ‘易理四法’이 모두 주자의 이근[朱子之

모기령 등의 청대 역학자들의 주자 역학에 대한 비판과 구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결론

본고는 주자 역학에 대한 다산의 이중적 평가를 문제삼았다. 왜 다산은 실질적 내용에서는 주자의 역학을 비판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주자학을 옹호하였는가? 그것은 다산의 역학이 주자의 역학을 의식한 것일 뿐 아니라 주자학을 비판한 청대 박학역에 대해서도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즉 다산은 주자학을 구성하는 이기론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의식하면서도 그렇다고 주자학의 경학적 의미마저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산에게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에 대한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문제일 뿐이었다. 주자의 학문 정신에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다산은 주자학의 부정적인 점만을 부각하여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유학이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서 주자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생각이 주자와 모기령의 역학에 대한 이중적 평가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자를 존송하는 태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다산의 역학이 주자나 모기령과는 달리 새로운 존재론적 근거 위에서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즉 다산은 이미 마테오리치가 성리학의 형이상학 체계를 비판한 논점을 받아들여 그것을 자신의 존재론에 입각해 새롭게 주역을 해석하였던 것이다. 다산의 역리 이론이 주자 역학을 비판하는 모기령의 역학과 많은 부분 유사하면서도 그가 모기령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산의 역학이 기존의 역학 이론에 대한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론적 근거 위에서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義]이었다는 것을 밝혔다(『周易四箋·四箋小引』, 『與猶堂全書』 II-37-17).